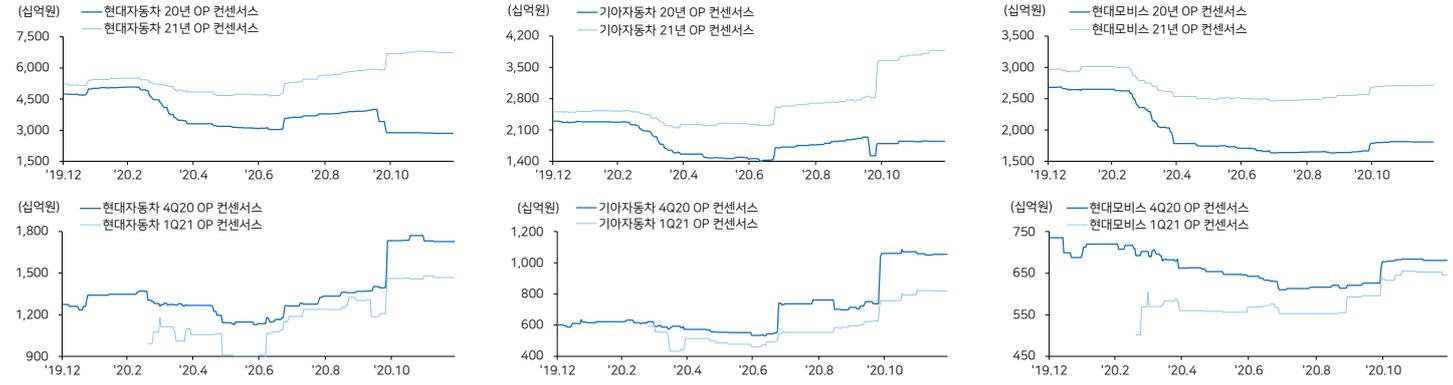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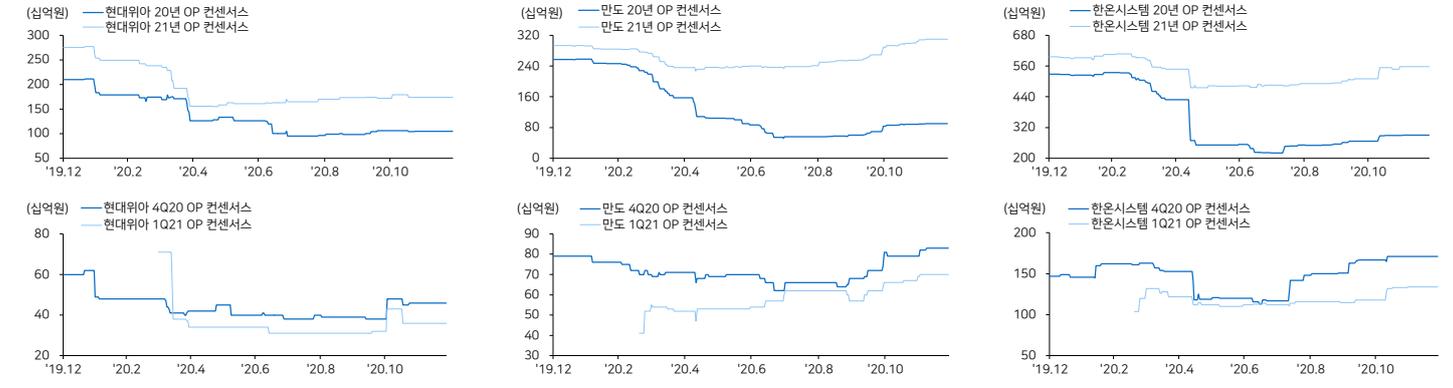


커버리지 컨센서스 추이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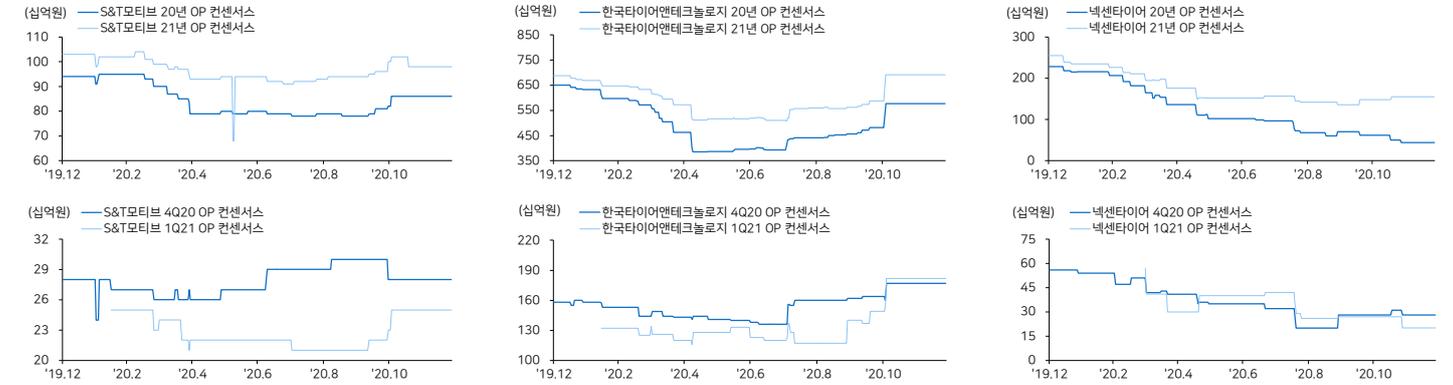
현대차 / 기아차 /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 만도 / 한은시스템



S&T모티브 / 한국타이어 / 넥센타이어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국내외 주요 뉴스

'전기차·배터리' 날개 단 구광모...로봇에 빠진 정의선 (대한경제)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미래 신성장 동력 발굴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LG전자는 세계 3위 마그나 합작해 전기차 시장 선점의 신호탄을 쏘고, 현대차는 로보틱스·UAM·수소 등 3대 핵심사업 육성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음.
<https://bit.ly/3bJAS3B>

서울 에너지 '영감받은 기아차, 미래 모빌리티 리더 되나 (ZD넷코리아)

기아차가 미래 모빌리티 산업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이끌겠다는 의지를 담은 새 로고를 공개해 이목을 끌었음. 이번 새 로고가 전기자동차와 자율주행차 등 새로운 모빌리티 시대의 리더로 기아차를 이끌 상징이 될 지 업계 관심이 집중되고 있음.
<https://bit.ly/39abNp3>

현대차·현대모비스, 아산공장 생산 재개 (연합뉴스)

현대차가 아산공장의 생산을 재개, 현대차는 시장 수요 대응을 위해 공급을 재개한다고 밝힘. 앞서 현대차는 쓰나미 피해 부진으로 재고 물량을 조절하기 위해 작년 12월23일부터 전날까지 공장 가동을 중단.
<https://bit.ly/2Lq0EXg>

중·자동차·가전·식음료 등 5대 분야 소비 육성 (파이낸셜뉴스)

중국 정부가 14차 5개년 계획(2021~2025년) 첫 출발점인 올해 자동차·가전·식음료 소비, 농촌 소비력 향상, 정부 지원 정책 분야를 집중 육성. 자동차 소비를 안정시키고 확대할 것을 제안하면서 도시의 구매 제한 조치를 최적화하고 번호판수 확대를 권장.
<https://bit.ly/35mCYvl>

기아차 씨드 왜건 PHEV, 스웨덴서 '최고의차' 수상 (뉴스원)

기아차는 전기차 '씨드 왜건 플러그인 PHEV'가 최근 유럽의 유력 자동차 전문지 테크니켄스 바를츠로부터 '2021 최고의차'에 선정됐다고 밝힘. 테크니켄스 바를츠는 스웨덴 대표 미디어 그룹사인 보니네르 그룹 소속으로 1948년 창간.
<https://bit.ly/39dsyvj8>

기아차, 작년 RV판매 현대차 제했다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기아차의 RV 판매량이 현대차를 추월한 것으로 나타남. 이에 내수 판매량은 지난해 사상 최저치를 경신. 기아차는 올해 전용 플랫폼 E-GMP를 탑재한 전기차 CV, 신형 스포티지 등 RV 차량을 추가 투입해 판매 확대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
<https://bit.ly/3s4UqyM>

보조금 자동차에 6천만원 미만 전기차 '올해가 기회'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전기차 구매보조금 차등화를 발표하자 수입차 업체들의 희비가 갈리고 있음. 대부분은 전기차 보조금 대부분을 테슬라가 가져갔는데 판매량이 많지도 않은 수입차들이 애꿎은 피해를 보게 됐다는 이유.
<https://bit.ly/2Ld2cWv>

[CES 2021]한국타이어 '모델솔루션' 산업용 AR·개인 이동수단 공개 (파이낸셜뉴스)

한국타이어그룹의 계열사인 모델솔루션은 오는 11일부터 14일까지 온라인으로 개최되는 세계 최대 가전박람회 'CES 2021'에 참가해 4차 산업의 핵심 분야인 산업용 증강현실 디바이스(AR HMD)와 개인 이동수단 등 신제품을 공개.
<https://bit.ly/38okahx>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명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